

numbers 제 120호



주요 내용

2021.11.19

1. 이번 주 주제 :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 실태]
우리 국민의 디지털 소비, 코로나19 이후 2배 늘었다!
 - [대학생 음주 현황]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 현저하게 줄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떨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노인’하면 흰 수염에, 여름이면 하얀 모시옷을, 겨울이면 도포 또는 두루마기를 걸친 할아버지, 또는 한복 차림에 허리를 질끈 동여맨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노인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노인을 지칭하는 명칭부터 ‘실버세대’라고 한다. 나이는 60, 70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젊은이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이미지가 매체를 통해 상업화(예:실버마켓)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노인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높은 노인1인가구 비율, 저복지 국가 환경에서 기본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이 안돼 죽기 직전까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삶이 한국 노인의 현실이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나 높은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다음세대에 집중할 뿐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제 교회의 중심적 역할에서 빗겨난 노인에게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기 어려운데,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20호에서는 대한민국 노인의 실제 모습을 다루어보았다. 한국 교회가 실제 노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국 사회의 아픈 지점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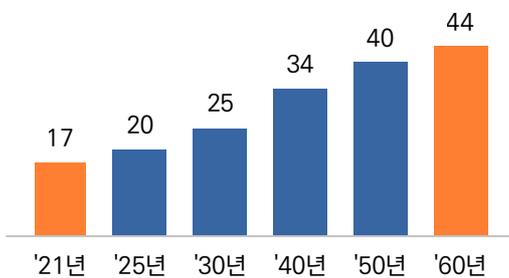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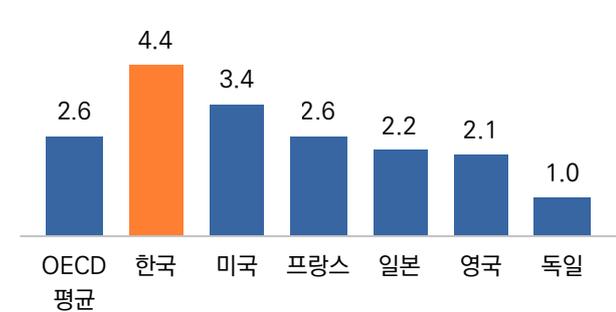
대한민국,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진입!

- 2021년(9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인데, 2025년에는 20%로 늘어나 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 OECD의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2011-202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이 2.6%임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고령화 속도가 빠르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그림] OECD 주요 회원국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령화 증가율** (%)



*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 고령인구비율 2021년', 2021.10.08.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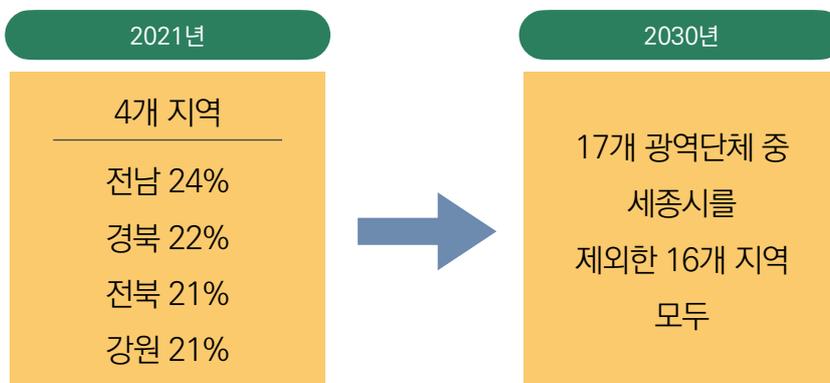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l2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2021.2.18.

● 2021년 초고령 지역(65세 인구 20% 이상), '전남'이 24%로 1위

- 2021년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는 '전남'이 24%로 가장 높았고, '경북' 22%, '전북' 21%, '강원' 21% 등 4곳이 차지했다.
- 하지만 2030년에는 '세종'(14%)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고령 지역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초고령 지역(광역단체, 65세 이상 인구 2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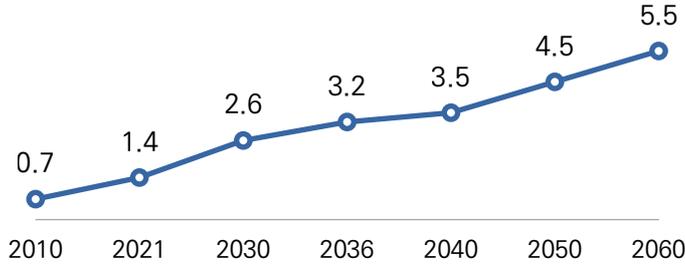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2021.09.29.

● 30년 후, 유소년 1명 당 노인 4.5명이 된다!

-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측정하는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1.4인데, 앞으로 40년 뒤인 2060년에는 5.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노령화 지수 (65세이상 고령인구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단위 : 유소년 1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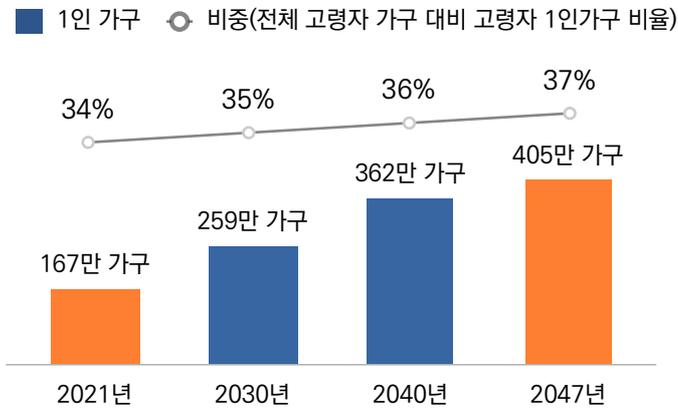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2021.09.29.

● 올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34%!

-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1인 고령자 가구도 늘어나 2021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사는 가구는 167만 가구(34%) 였는데, 2047년에는 2.4배 늘어난 405만 가구(37%)로 추계되었다.

[그림]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율(2020~2047)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2021.09.29.

2



전체 인구의 이혼 수는 감소하는데, 황혼 이혼은 증가!

- 20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6,500건으로 2010년(116,858건)에 비해 9%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 건수는 증가했다. 65세 이상 남자 이혼 건수는 2020년 9,854건으로 2010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여자는 5,285건으로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인구의 이혼수는 줄어드는 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림] 이혼 건수(전체인구 vs 65세 이상, 2010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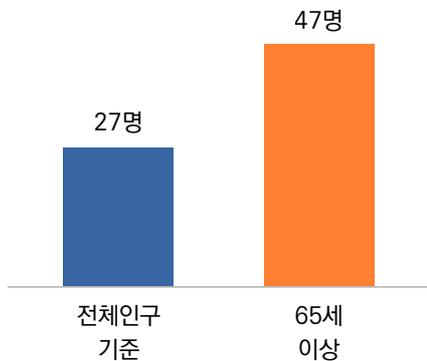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고령자 통계', 2021.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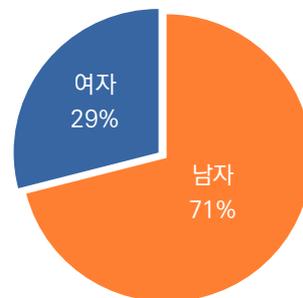
●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전체 인구 대비 2배 가까이 높아!

- 2019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600명으로 집계 되었고, 자살률(10만 명당 명)은 47명이었다. 전체 기준 자살률이 27명인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 65세 이상 성별 자살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71%, 여자가 29%로 남자가 훨씬 높았다.

[그림] 65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명, 2019년 기준)



[그림] 65세 이상 고령자 자살자의 성별 비율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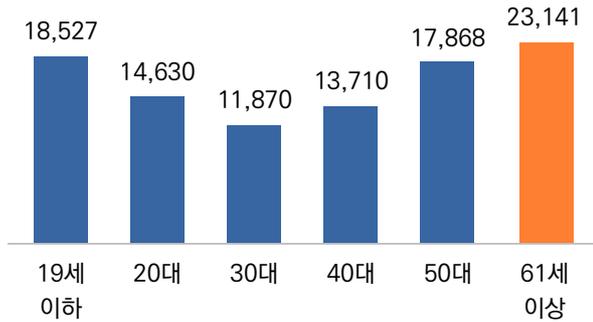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20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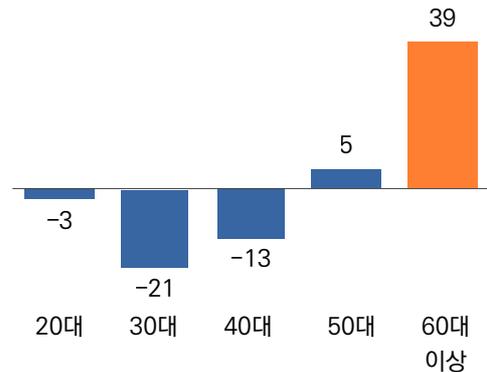
● 절도 범죄 줄어드는데, 유독 노인 절도 범죄는 증가 추세!

- 절도 범죄는 CC(폐쇄회로)TV가 많다보니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노인 절도 범죄가 늘어났는데,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 고령자 절도 범죄가 지난 4년간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령별 절도 피의자 현황(건수)



[그림] 연령별 절도 건수 증감율(2016~2020년) (%)



*자료 출처 : 경찰청, '최근 5년간 연령별 절도 피의자 검거 현황' 2021.10.05. 조선일보, '절도는 줄었는데 ... 노인 장발장은 늘었다', 2021.10.06.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0/06/Y103FJU0BNFH5DEH5C3PQVFW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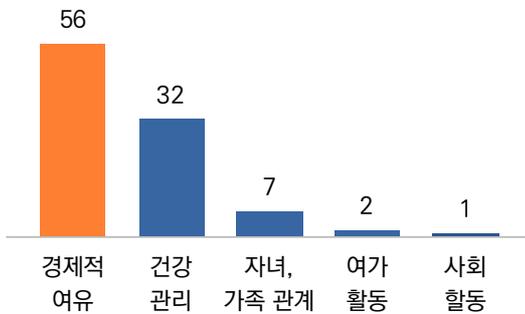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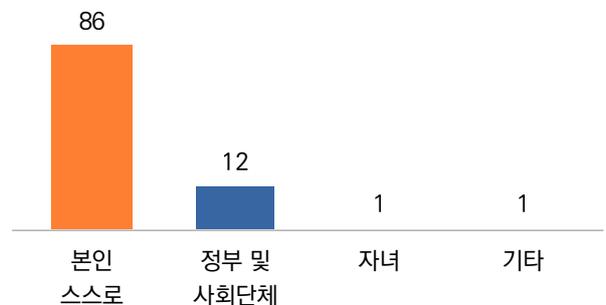
노후 생활 책임, '본인 스스로' 86%, '자녀' 1%!

-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6%)은 행복한 노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여유'라고 응답했다. '건강 관리' 32%, '자녀, 가족 관계' 7%가 그 뒤를 이었다.
- 노후 생활을 준비할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86%로 압도적으로 높아, 과거와 달리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일반국민) (%)



[그림] 노후 생활 준비 책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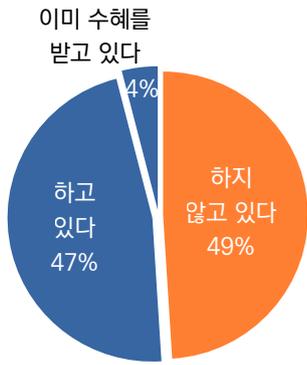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노후 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5.17.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19.5.3.-6)
 **노후 준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응답자 507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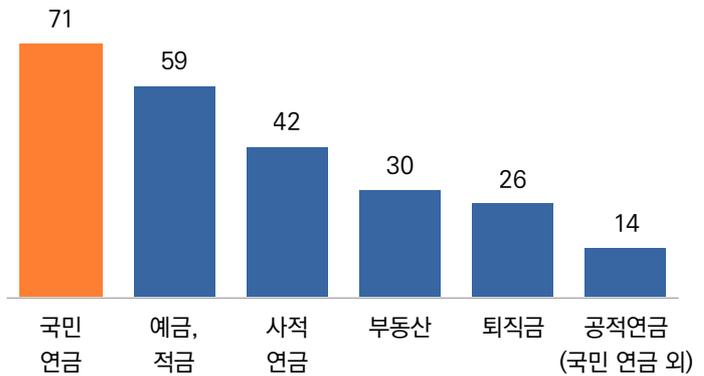
● 노후 준비, '현재 하지 않고 있다' 49%

-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47%, '하지 않고 있다' 49%로 국민의 절반 정도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71%로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 59%, '사적 연금' 4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과 예/적금을 제외하면 다른 노후 수단을 준비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였다.

[그림] 현재 노후 준비 여부



[그림] 수혜/준비하고 있는 노후 수단(중복 응답)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속의 여론, '노후 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5.17.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19.5.3.-6)

● 걱정 노후 생활비, 월평균 부부 기준 268만 원, 개인 기준 166만 원!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개인이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걱정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기준' 165만 원, '부부 기준' 268만 원, 이었다.
-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부부 기준 195만 원, 개인 기준 117만 원이었다.
-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은 48%로 절반이 채 안되며, 수령자의 경우 평균 64만원 정도로 월 최소 생활비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19년 주관적 개인/부부 기준 월 평균 노후 생활비(최소 vs 걱정) 및 연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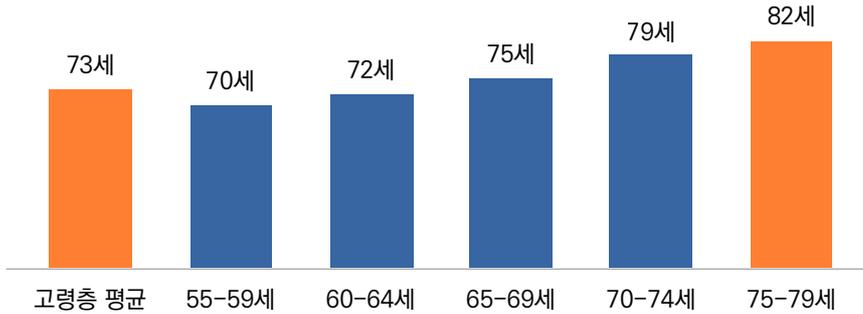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020.12.29. (전국민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 개인 7,343명)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 한국의 노인, 생계 등의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

-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을 대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하기 원하는지 근로 희망 연령을 질문한 결과, '55-59세'는 70세, '65-69세'는 75세, '70-74세'는 79세, '75-79세'는 82세로 나타났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세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인은 생계 등의 이유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연령별, 55~7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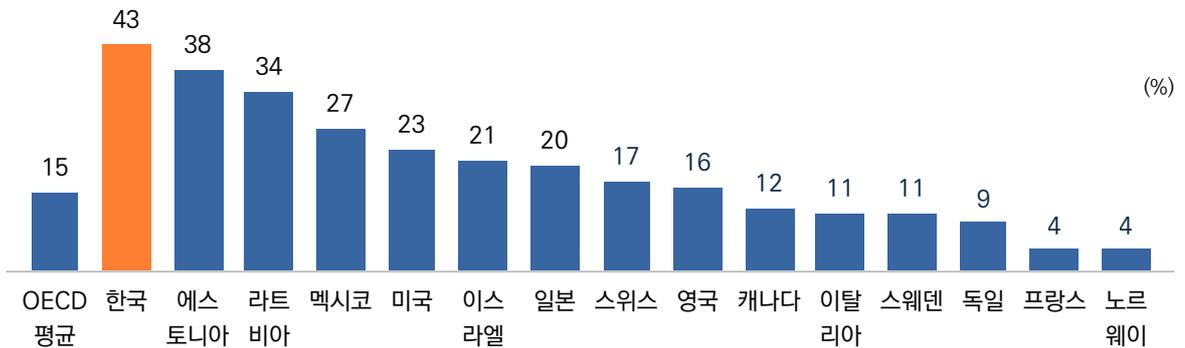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3%),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 2021년 8월에 발표한 OECD의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4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소득 분배에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 노인들의 10명 중 4명 이상이 불평등과 박탈감 등을 높게 느낀다는 건 교회가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

[그림]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2018년 기준)



*자료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8.3.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노인 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 미만 비율이 43%라는 의미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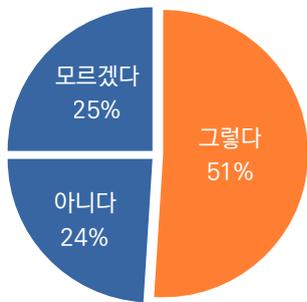


한국의 노인, 홀대 받는 경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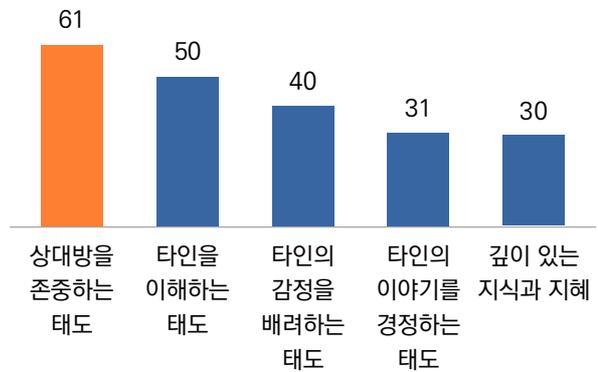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절반(51%)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사회에는 믿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만큼 한국의 노인이 홀대받고 외롭다는 의미이다.
- 우리 국민은 믿고 존경할 만한 어른의 자질로 무엇을 꼽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61%,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이해심)’ 50%,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 40% 등의 순으로, 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태도를 어른의 자질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어른에 유무 동의율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사회에는 믿고 존경할만한 ‘어른’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림] 믿고 존경할만한 어른의 자질(상위 5위,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사회적 나이 및 어른에 대한 인식조사’, 2020.11.11. (전국, 만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0.11.4.-9)



시사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엔 전체 인구의 20%, 2060년에는 44%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40년 뒤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자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다시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일본이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2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속도가 더 가파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인구의 질적 측면은 국가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는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둘째, 2000년에는 취업자 4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했으나 2050년이 되면 취업자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셋째 고령화는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며 복지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고령층의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하고 국민연금을 구성하는 세금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현상은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노인 개인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즉 독거 노인도 크게 늘어났다. 2021년에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4%가 1인 고령자 가구인데 2047년에는 3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4쪽) 또한 지난 10년간 전체 이혼 건수가 9% 감소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율이 무려 3배나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5쪽)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노인 세대 부부가 그동안의 갈등이 외부로 폭발하면서 이른바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따로 사는 줄혼까지 포함하면 노인 세대 부부 관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 빈곤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어서는 가족 생계,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계층이 급전직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43%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8쪽) 노인 고용률은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이 취업하는 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으로서 노인들은 그날 그날 살아가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사회에는 믿고 존경할만한 '어른'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성인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51%가 동의하고 있다.(9쪽) 노인이 홀대받는 사회에서 노인은 외로울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가중되면서 노인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으나 그 가운데 노인 문제는 사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다. 노인 문제는 교회 밖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교회 목회의 상당 부분이 노인 목회라 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노인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심리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은퇴 후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노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노인 목회의 출발점이다. 노인을 위한 상담 사역,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역, 빈곤 노인들에 대한 구제 사역,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문화 및 놀이 사역 등등은 교회학교처럼 교회에 필수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대신 노인학교 사역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 실태]
우리 국민의 디지털 소비, 코로나19 이후 2배 늘었다!
2. [대학생 음주 현황]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 현저하게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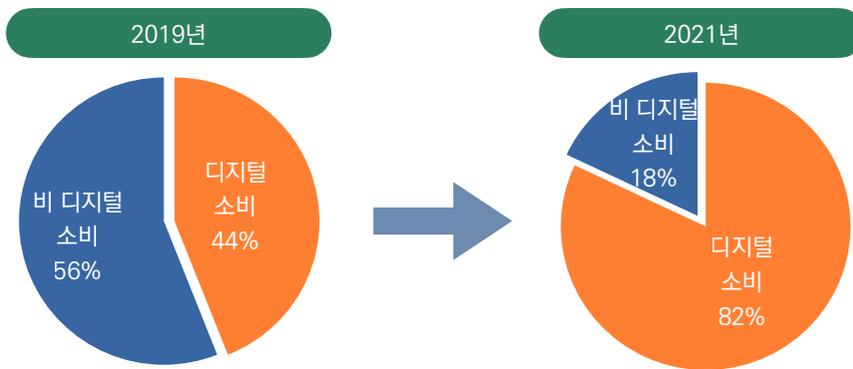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 실태



우리 국민의 디지털 소비, 코로나19 이후 2배 늘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2년 주기로 추적 조사해 왔는데, 최근 발표된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국민의 소비유형이 ‘디지털 소비’ 82%, ‘비 디지털 소비’ 18%로 디지털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가 급속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실제로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가 44%에서 82%로 무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소비 유형 변화(2019 v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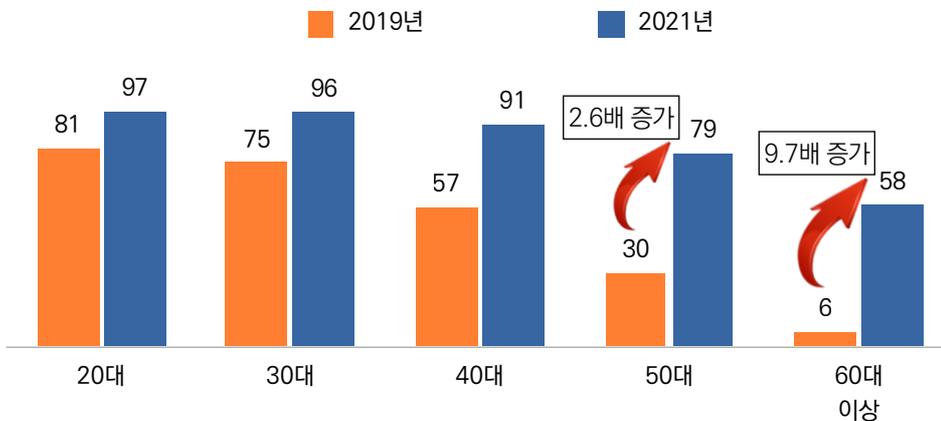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생활지표조사결과', 2021.11.09.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0명, 면접조사, 2021.5.14.-6.23, 2019년은 8,000명 대상임)

● 60대 이상 고령층, 디지털 소비 2년 사이 9.7배 증가

- 연령별 디지털 소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층의 경우 2021년 58%였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에 비하여 무려 9.7배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통적인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서 급속하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림] 연령별 디지털 소비율(2019 vs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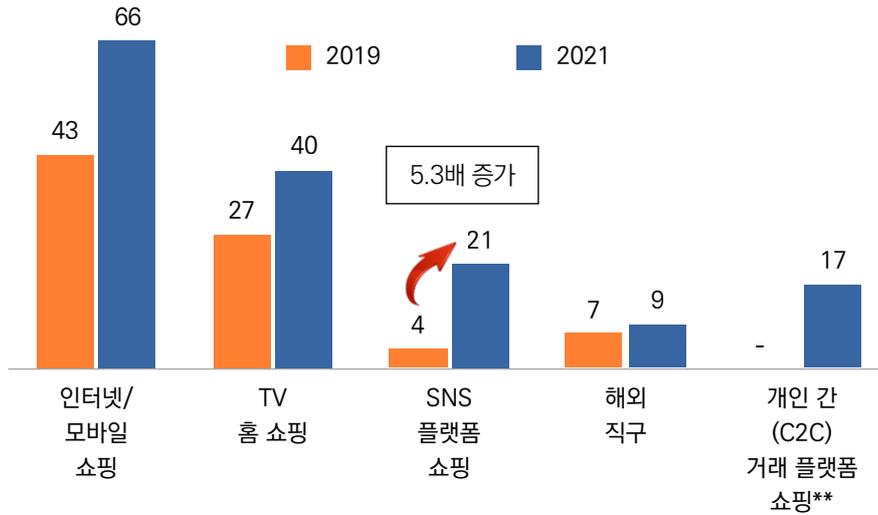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생활지표조사결과', 2021.11.09.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0명, 면접조사, 2021.5.14.-6.23, 2019년은 8,000명 대상임)

● 코로나19 이후, ‘SNS 플랫폼 쇼핑’ 5.3배 증가로 가장 커!

- 거래한 디지털 소비 유형으로는 ‘인터넷/모바일 쇼핑’이 66%로 가장 많았고, ‘TV홈쇼핑’ 40%, ‘SNS 플랫폼 쇼핑’ 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SNS 플랫폼 쇼핑’은 2019년 4% 수준에서 2021년 21%로 5.3배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2021년 첫 조사한 ‘개인 간 C2C(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거래 플랫폼 쇼핑’ 이용률은 17%였다.

[그림] 거래 유형별 현황 (2019 vs 2021)

(%)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생활지표조사결과', 2021.11.09.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0명, 면접조사, 2021.5.14.-6.23, 2019년은 8,000명 대상임)

**2021년에 첫 조사 항목임

2. 대학생 음주 현황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 현저하게 줄어!

- 대학생 음주와 관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음주빈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에 음주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량 역시 10잔 이상 마시는 Heavy User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20%, 이후 3%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학생의 음주 빈도와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대학생 음주 빈도와 양 변화(음주빈도/양 변화있다는 학생)



*자료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현황조사 결과 발표', 2021.11.9.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남녀 2,900명, 온라인, 2021.8.16.-10.1)

● 코로나19 이후, '혼술' 급증!

- 대학생의 음주 장소 역시 변화가 큰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점/호프집'이 64%로 가장 높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3%로 급감한 반면, '자신의 집'에서 먹는 일명 '혼술'이 코로나19 이전 8%에서 코로나19 이후 48%로 크게 증가했다.
- 음주 상대 역시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 또는 선후배'가 73%로 가장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가 48%로 1위를 차지했다.
- 폭넓은 관계가 필요한 대학생 시기에 코로나19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음주 장소와 상대 변화(변화있다는 학생, 상위 4위)



*자료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현황조사 결과 발표', 2021.11.9.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남녀 2,900명, 온라인, 2021.8.16.-10.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73호\(2021년 11월 3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54호 \(2021년 11월 3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차기 정치 지도자 등](#)

[이재명 왜 남태령 못 넘나...되레 與 비주류 이미지뎀 버텼다](#)

중앙일보_2021.11.14.

[여도 야도 “중도층 아닌 청년층이 캐스팅보터” 사활건 표심잡기](#)

동아일보_2021.11.15.

사회
일
반

[부자가 생각한 부자 기준 “총자산은 100억, 연소득은 3억 이상”](#)

중앙일보_2021.11.14.

[세제·대출규제 비웃듯... ‘家家익선’ 3만명 이상 늘었다](#)

국민일보_2021.11.17.

[이쁜줄만 알았는데...반려견이 암 코로나까지 진단해준다](#)

매일경제_2021.11.12.

[일찍 자면 좋은거 아니었어? 심장 건강에 좋은시간 따로 있다](#)

중앙일보_2021.11.12.

["가정 플라스틱 쓰레기 78%는 식품 포장재...마스크도 비중 커"](#)

연합뉴스_2021.11.17.

[한국 재난지원금, 한·미·일 중 가장 적지만 부담은 가장 크다](#)

국민일보_2021.11.18.

[작년 국내 거주 외국인 215만명... 코로나 여파 첫 감소](#)

동아일보_2021.11.17.

["중장년세대, 은퇴 후 삶 꿈꾸지만 '캥거루족' 자녀에 발 묶여"](#)

연합뉴스_2021.11.11.

[“그 아버지 한자 성함이?”... 이 질문에 2040 절반, 머릿속이 하얘졌다](#)

조선일보_2021.11.13.

경제

[위드 코로나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취폐는 코로나 이전 대비 -34%](#)

연합뉴스_2021.11.15.

[취업자 수 99.9% 회복? 머릿수만 따진 '반쪽짜리 진실'](#)

중앙일보_2021.11.15.

청
년

[넘사벽 아파트값에...6년새 340만명 서울 떠나](#)

매일경제_2021.11.16.

[취업 실패에 어둠속으로 밀려난 청년들.. '외톨이 중년'을 맞다](#)

파이낸셜뉴스_2021.11.16.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끊어진 계층 사다리... 성인 61% "노력해도 계층이동 어렵다"](#)

국민일보_2021.11.18.

[더 팍팍해진 살림... 가구부채 늘고 소득은 감소](#)

국민일보_2021.11.18.

[재택근무 3050 "비효율"... 원격수업 "비효과적" 92%](#)

국민일보_2021.11.18.

국
제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다, 1위는 ○○○](#)

한겨레_2021.11.13.

[전세계 순자산, 20년간 3배 넘게 성장...중국이 미국 추월](#)

연합뉴스_2021.11.15.

[최악 물가에 성난 민심...바이든 지지율 41% '최저'](#)

경향신문_2021.11.15.

기
독
교

[소그룹 참여자, 신앙 활동 2~3배 많았다](#)

국민일보_2021.11.17.

[Z세대가 정의하는 매력있는 전도자는?](#)

크리스찬타임즈_2021.11.12.

*이슈 큐레이션

[\[연합시론\]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집값 안정이 우선이다](#)

연합뉴스_2021.11.15.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빛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중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안양감리교회, 김용섭, 정하규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j01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연구소 소식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지난 11월 18일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두 기관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